



## 공공과 민간의료간 교류의 장

글|오수연(결핵연구원 국내기술협력팀장)



### 들어가며...

우리협회 결핵연구원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입상에서 흔히 접하는 폐결핵, 결핵과 감별 진단해야 할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연수강좌를 매년 기획하고 준비해온 스태프로서 행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본다.

개원의, 전문의, 전공의 및 봉직의, 보건소 진료의사들을 대상으로 제 4회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연수강좌가 지난 4월 29일(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교육총연합회 대강당 (1층)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회장 김성규)이 주최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후원한 이번 연수강좌에서 결핵연구원 류우진 연구원장의 "연수강좌를 통해 폐결핵 및 호흡기계 질환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려고 한다. 특히 외래진료에서 경험하시는 다양한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준비하였으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및 '호흡 재활치료' 등을 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연수강좌는 시작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강좌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국가결핵관리에 참여하고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향후 결핵퇴치사업의 활성화에 일조 한다는 뿌듯함을 안겨줬다.

강좌일정을 살펴 보면 최근의 결핵 발생 현황(결핵연구원 류우진 원장), 흉부 X선 사진을 통한 폐질환 진단의 요점(성균관대의대 이경수 교수), 결핵의 미생물학적 진단의 최신지견(장철 훈 결핵연구원 미생물부장),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울산대의대 심태선 교수), 다제내성과 광역 내성(XDR) 결핵의 치료(결핵연구원 김희진 역학부장), 결핵과 감별진단(서울의대 임재준 교수), NTM의 진단과 치료(성균관대의대 고원중 교수), 기관지 천식과 COPD의 감별진단과 치료(고려 의대 인광호 교수), 외래에서 흔히 보는 폐렴의 진단과 치료(한양대의대 신동호 교수), 호흡 재활 치료(울산대의대 김동순 교수) 등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내년 후년에도 더욱 알찬강의로 채워지는 연수강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제4회 결핵연구원 연수강좌는 막을 내렸다.

참석하신 분들이나 강사 모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로 매년 연수강좌는 일요일날 개최되고 있는데, 황금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좌장 김성규 회장을 비롯해 결핵연구원 류우진 원장님, 분야별 각 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열띤 강의로 연수강좌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것 같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연수강좌의 참석인원은 300여명 정도로, 행사장은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연수강좌에 비해 비교적 큰 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진행을 맡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앞으로 계속될 연수강좌를 어떻게 잘 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적지 않다.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연수강좌 참가시 무엇을 기대할까? 연수강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부족한가? 연수강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 인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 및 주제의 선정이다. 결국 강좌의 가치가 있어야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가 되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서로 연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수강좌 후에도 결핵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종 포럼을 만들어 활성화가 되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대로 홍보가 되었나? 대부분 개원의, 전문의, 전공의 및 보건소 진료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좀 더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연수강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결핵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핵연구원에서는 본 강좌를 통해 교육을 홍보하고 연수강좌의 주제 및 내용의 다양화를 위해서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주제를 매년 좀 더 심화시켜가면서 발표한다. 아울러 결핵연구원에서는 우수한 강사진과 함께 국가 최고의 결핵 전문기관으로서 홍보와 함께 결핵연구원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스스로 던져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 마치며...

결핵환자의 70%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 전문지식 및 보급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개원의들에 대한 결핵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결핵연구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핵관리에 대한 교육, 결핵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임상적인 교육이외에도 국가결핵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본 연수강좌를 더욱 활성화하여 개별 의사들이 결핵진료 표준화는 물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에 대한 의사 참여자세, 태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